

다산포럼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간디는 자신의 사티아그라하(Satyagraha, 인종의 비폭력 투쟁)가 '수동적 저항' 정도로 해석되는 것을 무척 못마땅해 했다. 본래 '진리에 굳게 섬'이라는 의미의 이 산스크리트 조어는 무조건적인 평화주의가 아닌, 전쟁 수행의 적극적 방법이었다. 제이 차 세계 대전 직후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전적 단행했던 인도의 독립에 간디의 비폭력 투쟁이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옳건 그르건, 적어도 그는 생각과 말에서 일관되게 정직했고, 행동하는 데 두려움이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그리하여 사람을 평하는 데 박하기로 유명한 조지 오웰은, 간디를 다른 한 사람에서, "성자로 불리는 이들은 죄 없다고 증명될 때까지 늘 죄 있는 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간디를 정정한 항기를 깊이 남긴 정치인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간디는 '유죄 추정'이라는 오웰의 혹독한 기준을 통과한 셈인데, 인간 사회에는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도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

선거 제도와 '갑질' 정치

들이 늘 있어 왔다. 사회 경제적 강자들이 대체로 그럴 텐데, 강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불비해졌으므로 많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갑'들에게 '심정적으로나마' 유죄 추정의 원칙을 좀 들이대기로하니, '을'들로서는 그저 본전치기에 불과할지 모른다.

대표성 확보와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주의에 그리 목매는 이유도 그것이 약자들을 거드는 데 상대적으로 유용한 정치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치마저 약자를 편들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부산을 댈다 한들, 그런 정치치는 이미 존재할 가치를 잃는다. 민주주의를 부단히 수선하여 대표성을 높이는 일이란, 각자가 역사와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일과 다름없을 것이다.

선거 제도는 정치 과정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장치다. 소선거구제가 대표성과 관련하여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다는 점은 두루 알려진 바와 같다. 물론 그런 결함이 이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의원내각제하의 소선거구제를 수 세기 동안 채택해 온 영국은 이모저모의 비례대표제를 지닌 대륙 국가들과는 달리, 극우 세력의 정치적 진입을 성공적으로 봉쇄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는 소선거구제가 우호적인 이러한 영국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다. 우선 '제왕적'이란 수사가 광범위하게 (부정적으로) 먹혀들고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권위주의 체제의 오랜 경험과 기억은 (승자 독식 체제가 부추긴) 강한 권력에 대한 거부감을 널리 유포시켰다. 더욱이 한국에는 종교, 인종, 언어 등 정체성 정치의 토대가 될 만한 체계적 갈등 요인이 부재하거나, 비례대표 원리가 대폭 도입된다 해도, 그것이 근본주의적 정치 세력의 발호로 이어질 확률은 별로 없다. 지역 정당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지만, 한국의 지역주의는 본래적 귀속성에 의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권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출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가 정상화되고 빈부 문제 등 본질적 갈등이 누그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될 가능성이 많다.

남은 것은 소선거구제가 두 거대 보수 정당에 맞서는 건전한 진보 세력을 정치적으로 부당하게 배제함으로써 대표성을 왜곡한다는 점이다. 해법은 선거 제도에 비례성을 높이는 일일 텐데, 기득권의 비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면, 기존 지역구 수를 건드리지 않은 채 비례대표의 지분을 늘리는 방법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영국은 남한 인구보다 불과 1300만 명 많지만 하원 의원 수는 한 세기 넘게 우리 두 배인 650명 내외에서 변함이 없다. 실은 대표성 고양과 더불어 양질의 정치인이 공급된다면, 국회의원 수가 큰 장애가 될 이유도 사라질 것이다.

한국 정당 체제와 정당 조직의 후진성

을 탓하며 선거 제도 개혁의 시기상조를 운운한다면, 이는 한국적 현실을 들어지 방 자치를 그리 오랫동안 천연시켰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앞세워 권위주의를 정당화했던 끔찍한 과거를 다시 연상시키는 일이다. 모든 의미 있는 개혁은 불리한 여건에서 시도된 후 서서히 토양을 바꾸어 나갔다. 비례대표의 의의가 확인되고 후보자 선출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면 새로운 스펙트럼의 정당 체제 또한 점차 자리 잡을 것이다.

촛불 정신 구두선이었나

좋은 선거 제도는 좋은 정치를 위한 기본 토양이다. 그동안 촛불 운운이 정략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변변한 개혁 하나 없이 지내 온 세월이었으니, 촛불 정신과 개혁은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했던 것인가. 선거 제도 개혁은 아홉을 내주더라도 거꾸로 관찰해야 할 개혁 과제다. 정치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다니, 만사지탄이나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상극처럼 보였던 거대 양당이 지역구 예산 확보와 소선거구제 방이라는 '일타쌍피'를 탐해 느닷없이 '협업'을 감행했던 게 불과 그것에었던 것을 떠올리면, 당장의 정치적 공공을 면하려는, 참으로 미덥지 못한 임기응변의 선연적 계승처일지 모른다. 의구심 또한 떨칠 수 없다. 정치마저 '갑질'에 나설 거라면, 애초에 민주주의는 왜 하자며 그리 법석이었나.

청춘 특·특



김연수
한인사·청춘여행 '하루사이' 대표

요새 집에서 울음소리가 자주 들린다. 다름 아닌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올해 나이에 첫 초코가 생긴 것이다. 우리 집에 이렇게 갓난아이가 함께하게 된 건 내 생전엔 처음 있는 일이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그렇게 작은지를 그전까진 알지 못했다. 말 그대로 얼굴은 주먹만 하고 손발은 고사리같이 여리고 작았다. 누나가 장난식으로 '삼촌에게 안겨봐'라며 나에게 조카를 떠넘길 때면 혹시라도 부셔서 버릴까 무서워 거만히 조카를 안고 끌어버린다.

이렇게 조그맣고 사랑스러운 생명의 탄생이 무척 신기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생명의 성장은 더욱 놀랍고 위대하다. 나는 주말에만 조카를 만나는데 볼 때마다 정말 쑥쑥 크는 게 느껴진다. 처음 3kg이었던 몸무게도 60일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서 이제는 꽤 무겁게 느껴질

황소를 들다

정도다. 누나에게도 이제 아이를 안아주기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 누나는 "매일 안아서 그런지 무거워졌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누나의 말을 듣고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옛날 어른들 말에 송아지를 매일 같이 업으면 나중에는 황소도 업는다더라."

황소는 무게가 500kg까지 달하는 거구의 동물이다. 이런 황소를 사람이 업는다고 상상하면 어떤 사람이 시도하더라도 힘들 것 같다. 장미란 선수의 역도 용상 기록이 186kg이라고 하니 보통 사람이 0.5t의 황소를 드는 건 역시 타무니없는 일이다. 하지만 평범한 성인 남성이라면 갓 태어난 송아지 정도는 업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송아지를 하루도 빠짐 없이 매일 같이 들어 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에 황소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수직천석(水滴穿石). 작은 물방울이라도 수천 수만 번 떨어지면 결국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 지금 당장은 미미해 보이는 일이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미래에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바위를 뚫는 건 신기한 일이다. 송아지를 업는 것은 별것 아닌 일이지만 황소를 업는 건 무척이나 단란한 일이다.

이렇듯 사소한 일이라도 끈기 있게 꾸

준하더라도 보면 미래엔 위대한 일을 해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요즘 사람들은 황소를 들 수 있는 미래를 지향하며 살기보다는 현재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불확실한 먼 미래에 투자하기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쫓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일찌감치 포기해버린다. 잡나의 행복과 편안함을 더 중요시하고 미래를 위한 작은 노력들은 가볍게 여기는 풍토. 점점 끈기 없어지는 사람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 대신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미래에 부자가 되길 바란다. 믿음을 동반한 구체적인 기대가 아닌 정말 막연한 기대로.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한 번에 큰돈이 폭고 떨어지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많은 돈을 모으려면 작은 돈부터 차근차근 저축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의 실정은 부자가 되길 바라면서도 작은 돈은 쏘다 이라며 '탕진잼',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를 외치며 잠깐의 만족을 위해 아끼지 않고 소비한다. 올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를 즐기라는 멋진 말이다. 하지만 요새 무작정 올로만 외쳐대며 태산 같은 미래를 위한 티끌 같은 노력들은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오

죽하면 '올로 하다 골로 간다'는 말까지 나오게 됐겠는가.

미래에 큰돈을 갖고 싶다면 작은 돈부터 저금하고 멋진 몸매를 갖고 싶다면 쉬는 시간마다 맨몸 운동을 하고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고 싶다면 매일 영어단어 57개씩이라도 외워보자. 지금 당장은 사소해보여도 꾸준히 반복하면 미래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너무 요행과 요령에만 기대지 말고 꾸준함과 끈기의 힘을 믿어보자. 목적지까지 가는 지름길은 아닐지 몰라도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공이 산을 옮기듯, 결국 미래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운이 좋거나 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직함과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나에게 황소를 업으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당장 내가 황소를 업을 수 있는 지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건 시간적인 시각이 아닌, 송아지 때부터 매일 꾸준히 업다 보면 언젠가 황소도 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고 싶다. 남들은 갈잡고 어리석게 보더라도 나 스스로는 꾸준함과 미덕을 믿고 언젠가 찾아올 기적 같은 미래를 향해 우직하게 나아가고 싶다.

기 고

산학 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절실하다



조 순 계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광주형 일자리'가 연일 화두다. '광주형 일자리'란 임금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는 늘리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지 않은 우리 지역에 정규직 근로자 1000여 명,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더한다면 1만여 명의 고용이 달린 일이라 화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광주무역 협회는 최근 일반 기업 취업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진 젊은 인재들이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도 예외일 리가 없다.

광주·전남지역 기업에서도 우수 인력

이 필요하지만 청년 인력의 상당수가 외부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일자리 mismatch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외부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광주시의 다차원적인 방안이 시급하다.

광주시는 연구개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내 전문대학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은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대학과 기업 그리고 광주시가 힘을 합쳐 지역 사회와 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산학 협력이란 산업계와 학계가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산업 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단순 연구 협력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대학과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함께 키우고,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수준으로 발전한 상태이다. 이 때

문예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산학 협력은 청년 취업과 창업의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 기업은 물론 광주시도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

광주시는 일자리 수준 향상을 통한 외부 인력 유입을 위해 산학 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들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기업도 필요한 기술을 사전에 대학에 요구하는 등 인재 공급과 기술 요구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하다.

또 중소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지역 기업과 학생 간의 인력 매칭을 통한 취업 연계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주시가 적극 나서 지역 청년들의 취업의 길을 넓힐 필요가 있다.

산학 협력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 동력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 협력을 통

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끝없이 창출되고 있다. 과거 산학 협력의 주체가 산업체, 연구소, 대학 등으로 한정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서비스, 콘텐츠, 융·복합 산업까지 그 범위는 한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경제 실현에 있어 대학과 산업체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새로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과 같은 산학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시대에 발 맞춰 광주시가 지역 전문대학과 기업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산학 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좋은 일자리는 지역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민생의 최우선 과제가 바로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한다.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이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현재 광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취업 준비생의 역량 향상은 물론 지역 기업과 전문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 매칭으로 참여 기관과 지역 청년이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

社 說

기아차 내년 '신차 카드' 지역경제 활력소로

기아차 광주 공장이 내년에 쏘울의 새 모델인 '쏘울 부스터'와 소형 SUV 등 신차를 생산하며 성공 신화 재현을 위해 시동을 건다.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제시된 '신차 카드'는 침체된 광주 지역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주 1호차가 생산된 쏘울 부스터는 광주 공장이 전량 생산하는 준중형 박스가 쏘울의 3세대 모델이다. 새로운 디자인과 뛰어난 상품성을 바탕으로 광주 공장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촉진제나 추진제를 뜻하는 영어 단어 '부스터(Booster)'를 별명으로 불렀다. 가솔린 1.6 터보와 전기차(EV) 두 가지 모델로 내년 1분기 중 본격 출시된다.

역시 내년부터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소형 SUV(코드명 SP2)는 올해 단종된 카렌스의 후속 모델이다. 준중형 SUV인 스포티지에 이어 소형 SUV까지

생산하게 되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광주 공장이 생산한 쏘울과 스포티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베스트 셀링 카로 자리 잡았다. 출시 10년째를 맞은 쏘울은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98.1%가 수출 물량이었다. 해외에서만 169만 대가 팔렸고, '포프 모빌(교황 전용차)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스포티지 역시 4세대 모델까지 나왔다. 광주 공장의 간판으로 지금까지 223만 대가 생산됐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광주 총 수출액의 40%, 총 생산액의 32%를 차지할 만큼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올 들어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생산량이 줄고 있다고 한다. 신차 출시를 계기로 광주 공장의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 고용 창출과 수출 증가, 협력업체 동반 성장, 향만 활성화 등의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역민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낼 필요가 있겠다.

이젠 광주문화관에 무얼 채울 것인지 준비를

광주시가 광주문화관 최종 후보지 네 곳 가운데 북구 각화동 시화 문화마을을 1순위로 선정했다. 일단 이 소식이 반가운 것은 그동안 문화단체 간의 갈등과 주도권 싸움으로 부지 선정 과정 등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던 터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광주 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회를 열고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화 문화마을에는 미술관, 커뮤니티센터, 문화의 집 등 문화관과 연계 가능한 시설물이 많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후보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후보지 2순위로는 마곡공원, 3순위는 상무소극장, 4순위는 지원배수지가 선정됐다. 시는 접근성, 연계성, 상징성, 문화적 환경과의 적합성, 비용 등을 따져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총 33개월이며 사업비는 189억5000만 원, 운영비는 연간 16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는 건립이 완료될 때까

지 자문·심의 역할을 수행할 가정 건립추진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는데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광주시 2명, 시의회 1명, 문화단체 6명, 언론인 1명, 타 시도 문화관 2명, 시민단체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광주문화관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는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화 문화마을에는 미술관, 커뮤니티센터, 문화의 집 등 문화관과 연계 가능한 시설물이 많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후보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후보지 2순위로는 마곡공원, 3순위는 상무소극장, 4순위는 지원배수지가 선정됐다. 시는 접근성, 연계성, 상징성, 문화적 환경과의 적합성, 비용 등을 따져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문화관은 내년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 예정이라 하니 아직 3년 이상의 시간이 있는 셈이다. 우선 개관해 놓고 보자는 안이한 생각으로 그때 가서 허둥대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 땅에서 활동한 문인들의 귀중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각별히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라면은 한때 가난을 상징하는 음식이었다. 그중에서도 컵라면은 휴대가 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가난했던 시절, 눈물의 음식을 대변한다.

성공한 연예인 중에도 과거 눈물로 컵라면을 먹던 이들이 있었다. 영화 '안시성'으로 뜬 배우 남주혁은 집에 화장실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 초등학교 3학년 시절 1년 내내 사발면만 먹었다고 털어놓았다.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탤런트 한고은도, 미국 이민 시절인 어릴 적 돈이 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고백하면서, 컵

수리하다 숨진 19세 김모 군의 가방에선 공구와 함께 컵라면이 나왔다. 그는 밥을 시켜 놓고도 출동이 떨어지면 못 먹는 경우가 많아 가방에 컵라면을 넣고 다녔다고 한다. 유품을 받아든 김 군의 어머니는 '컵라면 한 끼도 못 먹었다니' 하며 오열했다.

똑같은 일이 이번에도 일어났다. 며칠 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세 김모 씨가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그가 남긴 유품을 보니 컵라면 세 개와 고장 난 손전등, 그리고 탄가루를 닦아 낸 플라스틱이 전부였다. 낙탄을 치우라는 지

컵라면 유품

시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 매년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는 김 씨는, 발전소 설비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 3개월도 못 돼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뜻밖에도 정준들이 남긴 컵라면 유품이 가슴을 때린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청업체에 맡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원청업체의 부도덕성은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까. '반쪽 대책'으로는 산업 현장에서 스러져 가는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취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건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